

‘데뷔골 4명’ 벤투호 골 폭발, 아이슬란드 5-1 대파

김진규, A매치 데뷔전서 1골 1도움...엄지성도 첫 골
조규성·백승호도 득점포...K리그 위주 막강 화력 과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이 새해 첫 경기를 5-1 대승으로 장식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3위 한국은 15일(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이슬란드(FIFA 랭킹 62위)와 친선 경기에서 5-1로 이겼다.

우리나라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7-8차전에 대비한 이번 터키 전지 훈련 및 친선 경기를 맞아 해외파 선수들이 대거 빠진 가운데 국내 K리그 선수 위주로 대표팀을 구성하고도 유럽의 ‘북방’ 아이슬란드를 압도하는 화려한 경기력을 발휘했다.

아이슬란드를 4골차로 물리친 벤투호는 2002년 5월 16일 스코틀랜드전(4-1승) 이후 20년 만에 한국 남자 대표팀의 역대 유럽국가 상대 A매치 최다골차 승리 기록을 새로 쓰는 경경사도 맞았다.

벤투호는 최전방 공격수로 조규성(김천)을 배치하고 좌우 날개에 송민규(전북)와 권창훈(김천)을 내세웠다. 공격형 미드필더 이동경(울산)이 맡았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으로 김진규(부산)와 백승호(전북)가 포진했고, 포백은 김진수(전북), 박지수(김천), 김영권, 김태환(이상 울산)이 맡았다.

골문은 조현우(울산)가 지켰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2022년 첫 골의 주인공은 조규성이었다.

조규성은 전반 15분에 김진규가 골 지역 안으로 찰려준 패스를 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아

이슬란드 골문을 갈랐다.

한국은 전반 24분 역시 조규성이 백승호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안으로 들어갔다 상대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었으나 키커로 나선 권창훈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에 막히면서 달아날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권창훈이 불과 3분 만에 페널티킥 실패를 만회했다.

이동경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상대 문전을 향해 내준 긴 패스를 권창훈이 상대 뒷공간을 파고들며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서는 기회를 잡아 왼발 슈팅으로 2-0을 만들었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전반 29분에는 백승호가 페널티지역 정면 약 25m 거리에서 위력적인 오른발 중거리포로 팀의 세 번째 득점을 터뜨렸다.

한국이 전반 동안 8개의 슈팅을 시도해 3골을 넣은 반면 아이슬란드는 태극전사들의 철벽 수비에 막혀 ‘슈팅 제로’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후반 시작과 함께 홍철(대구), 이영재, 정승현(이상 김천)을 투입하며 김진수, 권창훈, 김영권을 교체했다.

후반 초반에는 전반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아이슬란드의 반격이 이어졌다.

아이슬란드는 전반 9분에 스페인인 귀드온센이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받아 슈팅한 것이 우리 수비 맞고 나오자 재차 밀어 넣어 1-3으로 추격했다.

이후 벤투 감독은 후반 16분 신예 공격수 김건희(수원 삼성)와 수비수 강상우(포항)를 넣고 김태환, 조규성을 빼는 선수 교체를 했다.



15일(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한국과 아이슬란드의 친선경기에서 엄지성(24번)이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후반 20분 이영재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 오고, 26분 김건희의 슛은 상대 골문을 갈랐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와 아쉬움을 삼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후반 28분 김진규가 자신의 A매치 데뷔전을 ‘1골 1도움’으로 장식하는 득점포까지 가동했다.

김진규는 이동경의 슛이 골키퍼 맞고 나오는 것을 오른발 슈팅으로 재차 연결하며 4-1을 만

들었다. 이후 후반 41분에는 후반 31분에 송민규 대신 교체로 들어온 2002년생 엄지성(광주)까지 득점에 가세했다.

엄지성은 이영재의 크로스를 그대로 헤딩슛으로 연결하며 5-1 대승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자신의 A매치 데뷔골을 자축했다.

이날 우리나라는 조규성과 백승호도 자신의

A매치 5번째 경기에서 첫 득점을 기록하는 등 총 4명이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리며 골잔치를 펼쳤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21일 같은 장소에서 몰도바(FIFA 랭킹 181위)와 친선 경기를 벌인다. 이후 27일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7차전 레바논 원정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그저 상대 선수라 생각...이기고 싶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핸드볼을 해온 자매가 실업무대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경기만큼은 언니라고,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저 상대 선수라 생각했다던 자매의 첫 맞대결은 언니의 승리로 끝났다. 맞대결 주인공은 광주도시공사 정현희(21·RB)와 서울시청 정진희(23·GK)다.

지난 15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1라운드 광주도시공사와 서울시청의 경기는 치열한 접전 끝에 1점으로 승부가 갈렸다. 광주도시공사가 28-29(15-17 13-12)로 아쉽게 패했다.

나란히 양팀 주전으로 경기를 소화한 정현희와 정진희는 자매다. 동생 정현희는 주니어 국가대표 출신으로 경남체고를 나와 2020 여자실업핸드볼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경남개발공사에 지명됐고 지난해 트레이드를 통해 광주도시공사 유니폼을 입었다.

언니 정진희는 일선여고, 한국체대를 거쳐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

**광주도시공사 정현희·서울시청 정진희 자매 대결
서울시청 승리...정현희 3골 정진희 방어율 42.9%
“운동 얘기 잘 안해...항저우AG 같이 가면 좋겠다”**

트를 통해 3순위로 서울시청에 입단했다. 2020 도쿄올림픽도 다녀온 국가대표 골키퍼다.

이날 경기에서 정현희는 9차례 슈팅을 시도해 3골을 넣었는데, 이 3골이 모두 언니 정진희가 골키퍼일 때 성공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한 슈팅 6번 가운데 5번을 언니에게 막혔고, 결국 승리도 언니 차지가 됐다. 정진희의 이날 방어율은 42.9%(18/42)였다.

경기가 끝난 뒤 정현희는 “처음으로 언니랑 경기를 하는 것이어서 설레고 긴장됐다”면서도 “시합만큼은 언니라 생각 안 했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밝혔다.

언니 정진희 역시 마찬가지로였다. 정진희는 “(현희가)상대팀 선수라 생각하면서 경기를 뛰었다”며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사실 자매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자매는 팔용초, 양덕여중까지만 함께 학교를 다니고 고교는 다른 곳으로 진학했는데 정진희가 일선여고 3학년, 정현희가 경남체고 1학년 때 전국체전에서 만났다. 당시 경기도 언니가 이겼다.

정현희는 “사실 그때도 언니한테 저서 이번 실업팀에서의 맞대결은 이기고 싶었다”며 아쉬워했다.

자매는 전화도 자주하면서 친하게 지내지만, 운동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현희는 “포지션이 달라서인지 운동 얘기는 잘 안 한다. 이번



광주도시공사 정현희(오른쪽)가 15일 경기가 끝난 뒤 언니인 서울시청 정진희와 포즈를 취했다.

경기도 마찬가지로였다”며 “드래프트 때 흑시 같은 팀이 될 가능성은 있을까 생각한 적은 있었는데 드래프트는 순서가 어떻게 정해 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진희도 “실업팀 입단은 현희가 먼저 했지만, 사실 실업팀과 대학이 크게 차이나는 건 아니어서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실업 무대에서 뛰는 자매는 정진희-정현희 외에 김선화-김은아(인천시청), 유소정(SK슈가글라이더즈)-유혜정(경남개발공사), 김지현(광주도시공사)-김탁연(삼척시청)이 있다. 이중 정진희-정현희 자매는 지난해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아 주목을 끌었다. 제25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최종엔트리 17인에 자매가 포함돼 김은아-김선화 자매에 이은 국가대표 자매 선수가 됐다.

정진희는 “같이 국제대회에 가게 돼 좋았다”면서 “현희가 경기를 많이 못 뛰었는데,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고, 또 경기를 보면서 많이 배웠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항저우아시안게임에 대해 묻자 정현희는 “같이 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며 태극마크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자매의 맞대결은 이제 시작이다. 이날은 언니가 1점 차로 이겼지만 경기 내용은 우열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치열했던 만큼 남은 라운드에서의 맞대결은 누가 승리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자매의 두 번째 맞대결은 오는 2월 10일 열린다. /최진화 기자

벤투 감독 “짧은 훈련에 좋은 경기력”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아이슬란드와 친선 경기에서 5-1로 크게 이긴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국은 지난 15일(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아이슬란드와 친선 경기에서 전반에만 3-0으로 앞서는 등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한 끝에 5-1로 대승했다.

경기를 마친 뒤 벤투 감독은 “연초인데 1주일 정도 훈련하고 나온 상태인데 선수들이

준비를 잘 해줘 공수에서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고 말했다.

벤투 감독은 “1주일 동안 훈련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수들이 주된 것에 대해 반응을 잘 해줬다”며 “앞으로 더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남은 1주일 더 연습해서 21일 몰도바전과 27일 레바논 원정 등을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페퍼저축은행, 현대건설에 0-3 패배

17연패...1승·22패 승점 5점

페퍼저축은행이 지난 14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4라운드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3(15-25 20-25 17-25)으로 패했다. 페퍼저축은행은 1승 22패 승점 5점에 머무르며 17연패가 됐고 현대건설은 22승 1패 승점 65점으로 선두를 달렸다.

엘리자벳이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페퍼저축은행은 힘든 경기를 펼쳤다.

15-25로 1세트를 내준 페퍼저축은행은 2세트에서 이한비, 지민경 등 주축선수들의 공격

이 살아나며 20-22까지 팽팽한 접전을 펼쳤으나 범실로 발목을 잡혔다. 3세트도 17-25로 패배. 이한비가 12득점(공격성공률 36.4%)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1위 현대건설의 벽은 높았다.

김형실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선수들이 갑자기 바뀐 포지션에 당황스러웠을 텐데 전체적으로 잘한 것 같다”며 “역전할 수 있는 기회에서 서브미스가 나서 아쉽다. 작전타임 때도 고비를 넘기는 연습을 (선수들에게)하라고 했는데 잘 안됐다”고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18일 오후 7시 페퍼스타디움에서 IBK기업은행과 홈경기를 갖는다. /조혜원 기자

김주형, 아시안투어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우승

연장전 끝 트로피 들어올려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4관왕에 오른 김주형(20)이 아시안투어 싱가포르 인터내셔널(총상금 10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김주형은 16일(한국시간) 싱가포르 타나메라 컨트리클럽(파72·7,53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3개로 2언더파 70타를 때렸다.

최종 합계 4언더파 284타를 기록한 김주형은 라타는 완나스리찬(태국)과 연장전 끝에 연장 첫 홀인 18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019년 11월 파나소닉 오픈에서 아시안투

어 첫 승을 기록한 김주형은 26개월 만에 두 번째 우승의 감격을 만끽했다.

전날 3라운드까지 선두 완나스리찬에 2타 뒤진 단독 2위였던 김주형은 이날 6번 홀까지 보기 1개를 기록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7-9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으며 공동 선두로 나섰다.

김주형은 이후 11번 홀(파4)과 14번 홀(파3)에서 버디를 잡으며 단독 선두까지 올랐지만, 17번 홀(파4)에서 보기를 기록하며 완나스리찬(최종 합계 4언더파 284타)과 연장에 돌입했다. 결국 김주형은 연장 첫 홀에서 약 6m의 버디 퍼트를 극적으로 성공시키며 완나스리찬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